

저자의 말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국어 가르치는 코난T입니다.

오르비에 각종 자료와 칼럼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했는데(코난T로 검색하시면, 그간의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책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에서는 '2020학년도 EBS 수능완성 문학 수록 전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 고전시가 전문+현대어 풀이+친절한 주해

고전시가의 경우, 한 글자도 빠짐없는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다시피,

EBS 수록 고전 시가가 연계될 경우, EBS에서 제시되지 않은 범위에서 주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전 시가 전문을 반드시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비단 현대어 풀이와 원문을 matching시키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실전에서 '아 이작품이 나왔구나!'하고 본문을 5-10초 사이에 '스캔'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문에 대한 현대어 풀이는 물론 현대어를 보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부분에 대한 각주를 밀도 있게 달아 놓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 만으로도,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현대시를 감상하는 사고의 흐름 제시

수험생 여러분은 그간 현대시를 다룬 문제집 혹은 분석서에서

'자유시, 서정시'와 같은 갈래, 혹은 주로 쓰인 표현상의 특징들이 불친절하게 정리된 표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되, 해당 시를 대하는 코난T의 '사고의 흐름'을 풀어서 제시하였습니다.

독자는 이 흐름을 따라가며, 해당 시에 대한 이해를 담보함은 물론, 실전에서 '비연계 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문의 줄거리, 주요 인물, 감상의 Point 제시

수험생의 입장에서 EBS에 연계된 산문 작품의 전문을 읽으며 수능에 대비한다는 것은 많은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모든 작품 전문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인물, 감상의 Point 역시, 전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혹은 해당 작품에서 감상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을 추려 제시하였습니다.

산문 작품당 1page씩의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수능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산문 연계 대비를 위한 모든 투자 중 최고의 효율을 약속 드립니다.

이 책은, 저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수업에서 사용된 교재와 동일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90여명의 수강생(지방 소도시임을 고려한다면, 소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이 책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2
코난T 드림

장르	작가명	작품명	Page	수완 수록 범위
현대시	정희성	저문 강에 샴을 씻고	4	유형편, p.95
	이기철	청산행	7	유형편, p.95
	윤동주	바람이 불어	10	실전 1회, p.149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2	실전 1회, p.149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16	실전 2회, p.182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19	실전 2회, p.183
	이동순	개밥풀	23	실전 3회, p.203
	박두진	설악부	26	실전 4회, p.236
	이건청	하류	29	실전 4회, p.236
	조지훈	흙을 만지며	32	실전 5회, p.255
고전시가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35	유형편, p.110
	정철	관동별곡	41	실전 1회, p.155
	정훈	우활가	46	실전 2회, p.178
	신흙	넛?에 히오라바~	49	실전 3회, p.203
	작자 미상	굼병이 매암이 되야~	50	실전 3회, p.203
	이이	고산구곡가	51	실전 4회, p.231
	작자 미상	사제가(思弟歌)	54	실전 5회, p.255
현대소설	손창섭	잉여 인간	61	유형편, p.102
	최인훈	회색인	62	실전 1회, p.151
	김동인	태형	63	실전 2회, p.180
	서정인	후송	64	실전 3회, p.206
	김원일	노을	65	실전 4회, p.234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66	실전 5회, p.258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적성의전	67	유형편, p.116
	작자 미상	정을선전	68	실전 1회, p.153
	작자 미상	오유란전	69	실전 2회, p.177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70	실전 3회, p.208
	작자 미상	이대봉전	71	실전 4회, p.232
	작자 미상	김원전	72	실전 5회, p.260
극,시나리오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73	실전 3회, p.211
	송혜진 외	인어 공주	74	유형편, p.124
	조환유 외	편지	75	실전 2회, p.184
	윤대성	출세기	76	실전 5회, p.262
수필	이양하	나무의 위의(威儀)	77	실전 4회, p.236
	이침	원수	78	실전 1회, p.156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실전 2회, p.182)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겉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술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짹짹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찢.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썩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겉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술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짹짹한 설움을 빨았더냐.

→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찢.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썩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실전 2회, p.182)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곁에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겉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손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짙절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원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얼굴에(그 얼굴이 파리하든, 아니든) 술을 ‘붓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는 않는다. 살아 있는 누이의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어버리면, 그 누이가 시적 화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따라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누이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리한 얼굴’은 죽은 누이의 핏기 없는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죽은 이의 시체에 대고 직접 술을 붓는 행위를 쉽사리 상상하지는 못하리라.(어떤 경우든, 시적 화자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지는 말자. 사이코패스인 시적 화자를 상정한 시는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시적 화자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죽은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붓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무덤에서 제(祭)를 지내는 상황인 것이다)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곁에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 시적 화자는 무덤 안에 있는 누이가 긴 잠을 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무덤 위에 핀 망초꽃을 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죽은 것이 분명한 누이를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감안한다면(설마 시적 화자가 누이가 죽지 않고 무덤 속에서 자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겠는가? 3살짜리 애도 아니고...), ‘시리도록 허연 영하의 가을’이라는 표현이 시적 화자의 비애감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 시적 화자는 누이의 무덤을 ‘풀씨마저 피해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슬픔과 삭막한 무덤의 모습이 조응된다 할 수 있다. 한편 누이는 죽었으니, 단발머리의 빛은 바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에서는, 직전 연과 마찬가지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슬픔을 읽어 낼 수 있다.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겉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 시적 화자는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죽은 누이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상)을 꺼내 무덤 안에 있는 ‘뼈다귀’와의 악수를 한다. 물론 이 역시 시적 화자의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무덤 파헤칠 일 있냐? 그런데 여기서 누이의 뼈다귀를 ‘겉끄럽다’고 하고 있다. 누이의 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

는 시적 화자에게는 펼쳐진 일이었으리라. 그렇게 누이와 ‘악수’를 하는데, 이빨 새로 피가 배어 나온다. 우리는 울음을 참을 때 입술을 깨물곤 한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어야만 울음을 참을 수 있었던 시적 화자의 슬픔의 무게를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이렇게 배어 나온 피를 ‘어머니가 물려주신 푸른 색’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피는 누이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난 것이기에, 시적 화자에게는 피를 누이와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누이가 동복(同腹)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혈육임을 상기하고, 생전 누이와 함께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가 ‘푸르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누이와 함께한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기 때문이리라. 푸른색은 삶의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색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우울함을 표상하는 색이기도 하다.(영어 단어 Blue가 어떤 뜻을 가지는 지 확인하자.) 이 시의 분위기 상(특히 뒤에 나올 시적 화자와 누이의 삶을 고려하면) 푸른색을 긍정적인 이미지의 색채어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술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짙절한 설움을 빨았더라.

→ 시적 화자는 과거의 누이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요란한 빗줄기 속에서 개울을 뛰어 건너는 시적 화자 본인과 누이의 모습을,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술가락을 움켜쥐고’ ‘설움을 빨았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배가 고파 으면 술가락을 움켜 쥐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슬펐다면 ‘눈물보다 짙절한 설움’을 빨았던 것일까.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 시적 화자는 과거의 자신과 누이에게 아침은 항상 뒤에서 솟아나는 존재였다고 진술한다. 하루의 시작이자, 그 자체로 희망을 읽어낼 수 있는 ‘아침’은 그들의 등 뒤에서만 솟아나는 존재였던 것이다. 등 뒤에 눈이 닿지 않은 이상, 시적 화자와 누이는 ‘아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둠만이 영원했을 것이다. 직전 연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 일상에서 서러움을 느꼈던 그들에게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산길을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았다는 진술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산길을 자주 다녔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굳이 신발이 있는데 맨발로 산길을 다니지는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산길을 다닐 때 신을 신발 하나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시적 화자와 누이는 맨발로 산길을 다녔을까? 직전 연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배고픔’일 것이다. 그 산길에 있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은 ‘술가락을 움켜쥐고 구정물 개

울을 뛰어 건너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존재였으리라. 그렇게 시적 화자의 기억 속 자신과 누이는, 마치 ‘질척이는 뜨물(국식을 찌어 내 부엌에 된 물) 속의 밥덩이’처럼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현실에 부딪히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의 현실을 감내해 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썩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 중풍은 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는 병이고, 따라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시적 화자는 누이와 자신이 중풍병자로 태어났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난 시적 화자와 누이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썩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다고 진술한다. 비록 본인들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삶을 살 수 없는 처지였으나, 그 처지를 극복해 내기 위해 치열하게(땀을 흘리며,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 지르며) 어둠으로 표상되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왔던 것이다.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 시적 화자는 다시 누이를 호명한다. 그런데 그 누이는 ‘편안히’ 누워 있다고 한다. 1연에서 처음 호명할 때의 누이와 지금의 누이가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저 무덤 속에 누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누이가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시적 화자는 누이의 생전에 함께했던 기억을 반추했다. 그 기억 속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비참했다. 비참한, 희망이 없는 현실을 살다 죽은 누이를 떠올린 시적 화자는, 누이에게 죽음이 비참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편안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아가, 만약 누이가 죽어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이 드러났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누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다고 느끼며 무덤에 술을 붓고, 튀어오르는 술방울을 보며 시적 화자는 눈물을 읽어 내었다. 시적 화자에게 이 술방울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누이의 눈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누이와의 정서적 교감). 기실, 만약 누이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녀의 혈육이 본인의 무덤에서 제를 지내는 상황에서 당연히 눈물을 흘렸으리라. 그 눈물이 스스로의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든다는 진술을 통해, 우리는 제를 지내는 시적 화자의 깊은 슬픔을 읽어낼 수 있다.

<감상 Point>

★**누이에게 술을 붓는 행위**: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붓는 것(=무덤에서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위)

★**형클어진 가슴 몇 조각**: 죽은 누이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상

★**악수**: 죽은 누이와의 정서적 교감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 중풍병자**: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시적 화자와 누이를 표상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 누이의 눈물, 시적 화자와 누이의 정서적 교감을 표상

★이 시는 기형도의 개인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 시인이 9살일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가세가 기울었다.
→ 이 시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
→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

㉡ 시인이 중학생일 때, 바로 윗 누나가 비참하게 죽음
→ 누이의 무덤에서 제를 지내고 누이를 회상하는 시적 화자
→ <심화 1>

★이 시의 제목,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시는 신라 향가인 「제망매가(祭亡妹歌)」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제망매가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하자.
(만약 이 시가 출제된다면, <보기>로 「제망매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제망매가와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심화 2>

<심화 1>

(전 략)

기형도의 두 살 터울 누나가 여고 2학년 시절 집 앞 논두렁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다. 그 누이는 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형도와 함께 고아원 생활까지 같이한 남다른 사이였다. 설상가상으로 2주 뒤 잡힌 범인은 남매가 함께 다니던 교회의 청년 신도였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사춘기 소년이던 기형도에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던 기형도는 이후 종교를 버렸고, 그 대신 염세적 실존주의 철학자라 할 쇼펜하우어와 키르케고르의 철학에 빠져들었다.

"형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이를 위해 쓴 시라며 '가을 무덤-제망매가'를 보여주더군요. 그 시를 읽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형도는 울진 않았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

감정이 복받쳐 올라 안경을 벗고 붉게 물든 눈자위를 닦던 그는 당시 기형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난 그날 이후 정서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기형도 누나의 죽음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후 략)

『기형도 시의 원점은 1975년 5월 16일 누이의 죽음에서 찾아야』

(기형도의 절친한 친구였던 소설가 김태연과의 인터뷰, 주간동아, 2018) 중에서

<심화 2>

생사로는

생사길은

예 이사매 저히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닐고 가느디고

못다 이르고 여찌 갑니까?

어느 그술 이른 브르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뿌러질 님다이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흐든 가재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가논 곧 모드온더

가는 곳을 모르구나

아으 미타찰애 맛보올 내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닛가 기다리고다

도 닛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

「가을 무덤 - 제망매가」와 「제망매가」의 공통점

- ㉠ 의문의 표현, 영탄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주된 내용으로 시상 전개

「가을 무덤 - 제망매가」와 「제망매가」의 차이점

-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누이의 생전 모습이 제시됨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되지 않음
-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 제시됨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되지 않음
-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내세에 다시 만나자는 기약이 제시되지 않음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됨
-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음
↔ 「제망매가」에서는 화자의 슬픔이 종교적으로 승화됨
(불교적 세계관-거자필반(去者必反))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¹⁾ (유형편, p.110)

<서 사>

오산(烏山) 서(西)²⁾ 외로운 ㅁ을 이 내의 도구(菟裘)³⁾로다
석전모옥(石田茅屋)애 종로(終老)호라 기약(期約)터니
명강(名疆)⁴⁾에 힘이 이서 십재(十載)를 분주(奔走)하니
천장홍진(千丈紅塵)⁵⁾애 검은 머리 다 세거다⁶⁾
전원(田園)이 거칠거든 송국(松菊)을 늙 갖고며⁷⁾
구맹(鷗盟)⁸⁾이 차 잇거니 학원(鶴怨)⁹⁾이라 업솔소냐¹⁰⁾
여관(旅館) 청등(靑燈)애 장석음(莊鳥吟)¹¹⁾을 제 늙 알리
환해풍랑(宦海風浪)¹²⁾이 졸연(猝然)히 니러나니
저어(岨嶸)¹³⁾한 고종(孤蹤)¹⁴⁾이 죄(罪)는 어이 짓도던고
명시부견(明時負譴)¹⁵⁾하야 더딘 몸이 되야시니
지지(遲遲)¹⁶⁾한 행색(行色)이 권련(眷戀)¹⁷⁾하다 어이하리
서호구업(西湖舊業)¹⁸⁾에 필마(匹馬)로 도라오니
적막(寂寞)한 황촌(荒村)애 파옥수간(破屋數間) 뿐이로다
어와 이 생애(生涯) 이리 하야 어이하리

<서 사>

금오산 서쪽의 외로운 마을이 내가 여생을 보내는 곳이다
돌밭이 있는 초라한 집에서 늙도록 살다 죽으리라 기약하였더니,
명예욕을 못 이겨 십년을 분주하였더니,
혼란한 속세에 검은 머리가 다 하얗졌구나.
전원이 거칠거든 소나무와 국화를 누가 가꾸며
갈매기와 의 약속이 차 있으니, 학의 원망이 없을 것이냐.
여관의 푸른 등에 고향 그리워 하는 슬픈 노래를 누가 알겠느냐?
벼슬살이의 여러 장애가 갑자기 나타나니
힘난한 세상사에 외로운 처지가 되어 버리니, 죄는 어찌 지었던가.
태평한 시대에 자주 책망 받게 되어 임금에게 내쳐진 몸이 되었으니
떠나기 아쉬워 하며 뒤돌아 보며 미련을 가진다 한들 어찌하리.
서호의 옛 집으로 한 필 말로 돌아오니
적막하고 황폐한 마을에 부서진 집 몇 칸 뿐이로다
아, 이 생애를 이리 하여 어찌하리

<서사>에서는 시적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을 진술하고 있다. 귀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으나, 40여년의 벼슬 살이를 그만 두고 낙향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신계영은 사직 후 충남 예산으로 낙향하여 월선헌(月先軒)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 시가는 월선헌 주변 자연 경치를 계절 변화에 따라 그려낸 작품이다.
- 2) 오산: 충남 예산의 금오산
- 3) 도구: 중국 노나라의 지명으로, 노나라(공자도 노나라 사람이다)의 제 13대 임금인 은공이 제위를 물려준 뒤 이곳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공자의 「춘추」, <은공편>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후 도구는 관직에서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려는 곳의 의미로 문학 작품에 사용되었다.
- 4) 명강: 명예라는 울가미(=굴레)
- 5) 천장홍진: 천 길 붉은 먼지(=혼란한 속세)
- 6) 이 시가의 작가인 신계영은 40여년의 관직 생활을 하고, 79세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명강에~다 세거다'의 두 구절은 그의 생애를 고려할 때,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며 나이가 든 본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7) 속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나오는 전원장무호불귀(田園將蕪胡不歸-전원이 황폐해지려 하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와 유사한 구절)
- 8) 구맹: 갈매기와 귀거래(歸去來-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겠다고 맺은 약속
- 9) 학원: 학의 원망, 귀거래 하겠다는 기약을 스스로 어긴 데 대한 자책을 자연물(=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10) 직전 행과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가 귀거래 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음.
- 11) 장석음: 고향을 생각하는 슬픈 노래(중국 전국시대 월나라 사람 장석이 초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병이 들자 월나라를 생각하며 고향 노래를 불렀던 것에서 유래)
- 12) 환해풍랑: 벼슬살이의 여러 장애물(신계영은 74세에 전주부윤이 되었다가, 76세에 호남관찰사 허적의 미움을 사 전주부윤을 그만 두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진술로 추정됨)
- 13) 저어: 산길에 울퉁 불퉁함(여기서는 세상사의 험난함을 뜻함)
- 14) 고종: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몸
- 15) 명시부견: 올바른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질책을 받아
- 16) 지지: 떠나기 아쉬워 하는 모습
- 17) 권련: 뒤돌아 보며 미련을 가짐
- 18) 서호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집. 중국 전국시대 월나라 책사 범려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왕 부차에게 미인계를 위해 중국 4대 미녀로 꼽히는 서시를 바치는데, 오나라 멸망 이후에 서시와 함께 서호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민간설화가 전해진다. 여기서는 '고향의 집'을 뜻한다.

<본사 1- 춘경>

원림(園林) 노른 고디 소당(小堂)을 지어 내니
 현창(軒窓)이 소쇄(瀟灑)흔디 안계(眼界)조차 너를시키고
 삼경(三徑)¹⁾ 송황(松篁)은 새 빛출 띄여 잇고
 십리(十里) 강산(江山)이 망중(望中)의 버러시니
 월호풍령(月戶風嶺)²⁾ 일 업시 비겨 이서
 듯거니 보거니 승취(勝趣)³⁾도 하도 만타
 호천(湖天) 봄 빛치 두병(斗柄)⁴⁾ 조차 도라 오니⁵⁾
 양파(陽坡) 7는 풀이 새 엄⁶⁾이 푸르렀고
 사정(沙汀) 약(弱)흔 버들 넷 가지 누울7 저기⁸⁾
 강성(江城) 느즌 빗발 긴 들호로 건너 오니
 청상(淸爽)흔 더 경개(景槩) 시흥(詩興)도 돕거니와
 약포산전(藥圃山田)을 하매면 가리로드
 이바 아히들아 쇼 조히 머겨스라
 여와씨(女媧氏) 하늘 깃던⁹⁾ 늙은 돌히 나마 이서
 서창(西窓) 밧 지척(咫尺)의 난봉(亂峯)이 되어시니
 싸커니 서거니 기괴(奇怪)도 혼더이고
 장송(長松) 훗선 속의 포기마다 고지 피니
 적성(赤城)¹⁰⁾ 아적 비에 불근 안개 저젓는 듯
 술 츄고 노는 사람¹¹⁾ 빈 날 업시¹²⁾ 올라가니
 난만(爛漫)흔 춘광(春光)이 몇 가지나 샅뎡고
 금오산(金烏山) 십이봉(十二峯)이 대야(大野)의 둘너시니
 7는 듯 머무는 듯 기상(氣象)도 기승(奇勝)흔다
 다사(多事)¹³⁾흔 청람(靑嵐)이 취대(翠黛)¹⁴⁾에 빗겨 이서
 모드락 훗트락 태도(態度)도 할서이고
 창연(蒼然)흔 진면목(眞面目)이 보논 듯 숨는 양은
 용면호수(龍眠好手)¹⁵⁾로 수묵병(水墨屏)을 그렸는 듯¹⁶⁾

<본사 1- 춘경>

뜰 높은 곳에 작은 집을 지어 내니
 마루에 난 창이 씻은 듯이 말끔한데 시야가 넓어지는 구나
 은자의 거처에 소나무와 대나무는 새 빛을 띠고 있고
 십리 강과 산이 눈 앞에 벌려 있으니
 달빛이 비치는 집과 바람이 부는 난간에 할 일 없이 기대어
 듣거니 보거니 좋은 흥취를 자아내는 일이 많기도 많구나
 호수에 비친 하늘의 봄 빛에 북두칠성 자루조차 돌아 오니
 별이 잘 드는 언덕에 가는 풀의 새싹이 푸르렀고
 모래톱의 약한 버들 옛 가지가 새 가지로 바뀔 때
 강가 마을에 내리는 저녁비가 먼 들에서 건너 오니
 맑고 시원한 저 경치 시흥도 돕거니와
 약초를 심은 산밭을 잘 하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봐 아이들아 소에게 풀을 충분히 먹여보자꾸나.
 여와씨가 하늘을 깃던 늙은 돌이 남아 있어
 서쪽 창 밖의 가까운 곳에 여기저기 솟은 산봉우리가 되었으니
 쌓거니 서있거니 기괴하기도 하구나.
 큰 소나무 홀어 선 속에 풀 한 포기마다 꽃이 피었으니
 붉은 성 아침 비에 붉은 안개 젖었는 듯
 술병 차고 노는 사람 매일 같이 올라가니
 광채가 강하고 선명한 봄빛이 얼마나 많은 모양을 본뵈는가?
 금오산 십이봉이 넓은 들에 둘러 있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 그 기상이 기묘한 경치로구나
 변화무쌍한 푸른 아지랑이가 미인의 눈썹처럼 빗겨 있어
 모이는 듯, 흩어지는 듯, 그 모양이 다채롭기도 하구나.
 푸르스름한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모양은
 뛰어난 그림 솜씨로 수묵 병풍화를 그려놓은 듯 하구나.

- 1) 삼경: 은자의 거처, 중국 한나라의 은사 장허가 집 정원에 소나무, 대나무, 국화를 심은 세 길을 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
- 2) 월호풍령: 달빛이 비치는 집과 바람이 부는 난간 - 아름다운 달밤의 풍취를 환기!
- 3) 승취: 좋은 흥취를 자아내는 일
- 4) 두병: 북두 칠성을 국자 모양으로 표현할 때, 국자의 자루 모양을 구성하는 세 개의 별
- 5) 북두칠성의 두병이 북극성과 일직선이 될 때 입춘(양력 2월 4일경)이 된다. '입춘'이 도래했음을 의미.(입춘은 봄의 시작!)
- 6) 엄: 움, 새싹
- 7) 옛 가지가 '늙는다'는 것은 새 가지가 돌아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8) 직전 행과 이 행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이미지와 조응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9)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여황제인 여와씨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오색 돌을 가지고 그 구멍을 메웠다는 신화
- 10) 적성: 붉은 성, 여기서는 붉은 꽃이 웅기종기 핀 모습을 표현한 것.
- 11) 시적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 12) 빈 날 업시: 빈 날 없이
- 13) 일이 많은: 변화무쌍한
- 14) 미인의 눈썹
- 15) 용면호수: 중국 송나라 시대 화가인 '이공린'의 탁월한 그림 솜씨
- 16) "금오산~그렸는 듯" 의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 2 - 하경>

잔화(殘花)는 벌써 지고 백일(白日)이 점점(漸漸) 기니¹⁾
장제(長堤) 눈엽(嫩葉)이 새 그늘 어릴 저기²⁾
형비(荊扉)³⁾를 기피 닳고 낮잠을 잠깐 드니
교만(驕慢)은 깃고리 싸울 주리 무스 일고
괴파⁴⁾는 길히 초연이 기쁜 고디
목적(牧笛) 삼릉성(三弄聲)이 한흥(閑興)을 도와낸다
오서산(烏棲山) 두렷한 봉(峯) 반공(半空)의 다하시니
건곤원기(乾坤元氣)를 네 혼자 타 잊고야
조모(朝暮)에 잠긴 안개 바라보니 기이(奇異)하다
몇 번 시우(時雨) 되야 세공(歲功)을 일忘不了⁵⁾

<본사 2 - 하경>

시든 꽃은 벌써 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니
긴 강둑에 난 어린잎이 새 그늘을 만들 적에
문짝을 깊이 닫고 낮잠을 잠깐 드니
제 소리를 뽐내는 피꼬리가 깨우니 무슨 일인가?
기이한 꽃과 풀이 피어 있는 길에 풀 그늘 우거진 깊은 곳에
목동이 부는 세 가지 피리 소리가 한가한 흥취를 돌아 내는구나
오서산 두렷한 봉우리가 공중에 닿았으니
하늘과 땅의 기운을 너 혼자 담았구나!
아침과 저녁에 잠긴 안개를 바라보니, 그 모습이 기이하다
몇 번 때를 맞춰 비가 오니 한 해 농사를 이루었구나

<본사 3 - 추경>

오동(梧桐) 잎히 디고 흰 이슬 서리 되니⁶⁾
서담(西潭) 김핀 골애 추색(秋色)이 느껴 있다
천림(千林) 금엽(錦葉)⁷⁾이 이월화(二月花)⁸⁾를 브놀소나⁹⁾
동(東)녘 두던 밧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흐릿치 되야 있다
중양(重陽)¹⁰⁾이 거의로다 내노리 흥자스라
불근 괴¹¹⁾ 여물고 높은 듕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興味)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물래에 밤불¹²⁾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잊고
호두포(狐頭浦)¹³⁾엔 구빅에 아적물¹⁴⁾이 미러오니
돛든비 애내성(欸乃聲)¹⁵⁾이 고기 푸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본사 3 - 추경>

오동나무 잎이 지고 흰 이슬이 서리가 되니
서쪽 연못 깊은 골짜기에 가을빛이 늦어 있다.
숲속의 단풍이 이월의 봄꽃을 부러워 하겠느냐?
동쪽 언덕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한 빛이 되어 있다
중양절이 거의 다가왔다. 고기잡이 하자꾸나.
붉은 게가 여물고 누런 닭이 살찌 있으니,
술이 익었는데 벗이야 없을소냐?
농가의 흥미가 날이 갈수록 깊어 가는구나
물살 빠른 여울 주변의 긴 모래밭에 밤 불이 깊었으니
게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훑어 놓고
호두포 먼 굽이에 밀물이 밀려 오니
돛단배의 어부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고기를 파는 장사로구나.
경치도 좋거니와, 생활이 괴롭겠는가?

1) 봄 → 여름의 계절 변화를 의미

2) 어린 잎이 자라서 그늘을 만든다는 의미

3) 가시나무로 짜 만든 문짝

4) 괴파: 기파이초(奇葩異草)

5) 시적 화자는 이 행과 같이, 그저 자연을 즐기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사대부로서 백성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6) 여름 → 가을의 계절 변화를 의미

7) 천림금엽: 온 숲에 단풍이 들어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모습

8) 이월화: 이월에 피는 꽃 - 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입춘(立春)이 양력 2월 4일경임을 고려할 때, 봄에 피는 꽃을 의미

9) 가을 경치가 봄 경치 못지 않다는 의미를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음력 9월 9일의 옛 명절.

11) 민물 게를 의미

12) 밤불: 밤에 게를 잡기 위해 켜 헛불을 의미

13) 호두포: 충남 예산 인근의 포구로 추정됨

14) 아적물: 밀물

15) 애내성: 어부가 배를 저으며 부르는 노랫소리

<본사 4 - 동경>

가을이 다 지나고 북풍(北風)¹⁾이 노피 부니²⁾
 긴 하늘 너븐 들히 모설(暮雪)이 느니더니
 이윽고 경락(境落)³⁾이 각별(各別)한 천지(天地) 되야
 원근(遠近) 봉만(峯巒)은 백옥(白玉)을 못거 잇고
 야당(野堂)⁴⁾ 강촌(江村)을 경요(瓊瑤)⁵⁾로 꾸며시니
 조화(造化) 현스흔 줄 이제야 더 알과라⁶⁾
 천기(天氣) 늑렬(凜烈)하야 빙설(冰雪)이 싸혀시니
 교원(郊園) 초목(草木)이 다 최절(摧折)하얏거늘
 창밖의 심근 매화(梅花) 암향(暗香)⁷⁾을 머금었고
 재 우희 셔 잇는 술 프른 빗치 의구(依舊)하니
 본디 삼긴 절(節)이 세한(歲寒)하다 변(變)홀소냐⁸⁾
 압외히 자던 안개 햇빛출 그리오니
 죽림(竹林)의 썰린 서리 못 미쳐 노갓고야
 소노(小爐)⁹⁾를 나외 혀고 창(窓)을 닛고 안자 이셔
 일주(一炷) 청향(清香)의 세념(世念)이 그쳐시니
 단표(簞瓢)¹⁰⁾ 뷔다 하야 흥(興)이야 업술소냐¹¹⁾
 내 건너 쏜 뉘 아래 거친 뉘을 두서 집이
 노수시문(老樹柴門)¹²⁾에 섰긴 나¹³⁾ 빗겨시니
 의희(依稀)¹⁴⁾한 우타리 화도중(畫圖中) 그들시고
 우양(牛羊)이 느려오니¹⁵⁾ 오늘도 저물거다
 석문(石門) 노픈 봉(峯)¹⁶⁾에 석양(夕陽)이 불갓는디
 우리 네는 기러기 가는 듯 도라 오니
 형양(衡陽)¹⁷⁾이 아니로디 회안봉(回雁峰)¹⁸⁾은 여기런가¹⁹⁾
 사양(斜陽) 긴 다리예 오명가명 하는 행인(行人)
 어디러 향(向)하노라 뵈얏비 가는소다

<본사 4 - 동경>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바람이 높이 부니
 긴 하늘 넓은 들에 저녁 눈이 날리더니
 이윽고 마을이 특별한 세상이 되어
 멀고 가까운 산봉우리는 백옥을 묶어 놓았고
 들에 있는 집과 강마을을 아름다운 구슬로 꾸몄으니
 조물주가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더 알겠구나
 추위가 살을 얼 듯 심하여 얼음과 눈이 쌓였으니
 들과 정원의 풀과 나무가 다 꺾이었거늘
 창밖에 심은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머금었고,
 언덕 위에 서 있는 소나무 푸른 빛이 예전과 같으니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절개가 날이 춥다고 변하겠는가?
 앞산에 자던 안개가 햇빛을 가리니,
 대나무 숲에 뿌려진 서리가 미쳐 녹지 못했구나
 작은 향로를 내어 켜고 창문 닫고 앉아 있어
 한 심지 맑은 향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그쳤으니
 단표가 비었다 한들, 흥이야 없겠느냐?
 시냇물 건너 다른 산 안에 거칠게 보이는 마을의 두어 집이
 시립문에 열게 긴 안개가 빗겨 있으니
 보일 듯 말 듯 한 울타리가 그림 속 풍경 같구나.
 소와 양이 내려오니 오늘도 다 저물었다.
 높은 석문봉에 석양이 밝았는데
 울며 가는 기러기가 가는 듯 돌아오니
 이곳이 형양 땅은 아니로되, 회안봉이 바로 여기인가
 저녁 햇빛이 비치는 긴 다리에 오가는 행인은
 어디로 향하는가 바빠도 가는구나

1) 북풍: 겨울바람

2) 가을 → 겨울의 계절 변화를 의미

3) 경락: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촌락

4) 야당: 들판에 있는 집,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기거하는 월선헌을 의미

5) 아름다운 구슬

6)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음

7) 암향: 매화의 그윽한 향기

8) 이 구절을 통해, 시적 화자가 매화/소나무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사대부로서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9) 소노: 작은 향로(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

10) 단표: 단사표음(簞食瓢飲 -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과 표주박에 든 물)의 준말.

11) 시적 화자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노수시문: 오래 된 나무가 지켜서 있는 사립문

13) 섰긴 나: 열게 긴 안개

14) 의희: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태

15) 언덕에서 풀을 뜯던 소와 양을 의미

16) 석문 높은 봉: 충남 예산의 석문봉(해발 653m)을 의미

17) 형양: 중국 호남성에 있는 고을명

18) 회안봉: 중국 호남성 형양(지금의 중국 후남성 형양시)에 있는 봉우리. 옛 중국인들은 겨울 철새인 기러기들이 이 봉우리의 높이로 인해 넘어서 날아갈 수 없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19) 시적 화자는 기러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온 모습을 보고 중국 형양의 회안봉을 생각하고 있다.

용산(龍山)¹⁾ 외로운 달 언제부터 잊었던고
경자(磬子)²⁾ 달근 소리 바람 섞여 지나가니
알외라 늘근 중이 예불(禮佛)³⁾을 저기로다
강교(江橋) 춘 남그 명색(暝色)⁴⁾이 가다가니
서아(棲鴉)⁵⁾는 느라 들고 프른 모히 멀리 뵈다
한수(閑愁)⁶⁾를 못 금(禁)하야 프람을 기리 불고
수죽(脩竹)⁷⁾을 지혀 이서 들빛출 기돌오니
숨구쥔 널구로미⁸⁾ ㄱ릴 주리 므스 일고⁹⁾
장풍(長風)이 현스하여 옥우(玉宇)¹⁰⁾를 조히 쓰니¹¹⁾
일편빙륜(一片氷輪)¹²⁾이 물근 빗치 네로왔다¹³⁾
천암만학(千岩萬壑)¹⁴⁾의 슬크지 불가시니
단대(壇臺)¹⁵⁾ 늘근 술이 가지를 헤리로다
소렴(疎簾)¹⁶⁾을 고터 것고 기픈 밤의 안자시니
동봉(東峯) 도든 둘이 서령(西嶺)의 거디도록
침영(簷影)¹⁷⁾이 치 빗치여 침석(枕席)의 쏘아시니
녁시 다 몹으니 몽매(夢寐)¹⁸⁾돌 이실소냐¹⁹⁾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寂莫)히 다든 문에 니 분(分)으로 드러오니
사조(私照)²⁰⁾ 업다호미 거즌말 아니로다²¹⁾
모침(茅齋)²²⁾에 빗친 빗치 옥루(玉樓)²³⁾라 다를소냐
청준(淸樽)²⁴⁾을 밧비 열고 큰 잔의 ㄱ득 부어
죽엽(竹葉) ㄱ는 술를 들빛조차 거후로니
표연(飄然)흔 逸興(일흥)이 저기면 놀리로다²⁵⁾
이적선(李謫仙)이 이러하야 둘을 보고 밋치듯다

용산의 외로운 절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경자 맑은 소리 바람 섞여 지나가니
알겠구나, 늙은 중이 예불할 시간이로구나.
강다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나무에 어둑어둑한 빛이 가득하니
둥지를 만든 까마귀는 날아 들고 푸른 산이 멀리 보인다.
쓸데 없는 근심 걱정을 못 금하여 휘파람 길게 불고
긴 대나무에 기대어 달빛을 기다리니
심술궂은 지나가는 구름이 가릴 줄이 무슨 일인가?
센 바람이 요란하여 옥우를 깨끗이 하니
환한 겨울 달빛의 맑은 빛이 예전과 같구나.
(달빛이) 온 산 골짜기에 실컷 밝아 있으니
단대 옆의 늙은 소나무 가지 숫자를 다 셀 수 있겠구나
성긴 주렴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아 있으니
동쪽 봉우리에서 돋은 달이 서쪽 언덕에 걸리도록
처마 밑 기둥에 다 비추어 잠자리에 쏘였으니
넋이 다 맑아지니 꿈인들 있겠는가?
아, 이 맑은 경치 값이 있을 것이라면
적막하게 닫은 문에 내 분수에 맞게 들어오니
치우치게 비치는 일이 없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검소한 서재에 비친 빛이 옥루라고 다르겠는가?
술동이를 바빠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주 맑은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니
가볍고도 한가로운 흥취가 잘 하면 날아가겠구나!
이태백이 이러하여 달을 보고 미쳤도다.

- 1) 충남 예산에 있는 산의 명칭
- 2) 경자: 불전에 예불을 올릴 때, 절하는 행위를 인도하기 위한 소리를 내기 위해 쓰는 기구
- 3) 예불: 불전에 모셔진 부처에게 아침,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절을 올리는 행위
- 4) 명색: 저녁 해질 무렵의 어둑어둑한 빛
- 5) 서아: 보금자리(=둥지)를 만든 까마귀
- 6) 한수: 쓸데 없는 근심걱정
- 7) 기다란 대나무
- 8) 널구로미: 지나가는 구름이
- 9) 사대부의 시가에서 달빛은 임금의 선정, 달을 가로막는 구름이 간신배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typical한 상징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파악하면 간신배들이 임금의 선정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보기>로 임금-간신배와 관련된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석 하는 것이다)
- 10) 옥우: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
- 11) 바람이 세게 불어 구름을 다 없애버렸다는 뜻,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간신배가 사라진 조정을 뜻한다
- 12) 일편빙륜: 겨울 달빛이 환한 것을 얼음으로 만든 바퀴에 비유함.
- 13)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 14) 천암만학: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 15) 충남 예산에 있는 누각
- 16) 소렴: 성긴 주렴(=발)
- 17) 침영: 처마 밑의 기둥
- 18) 몽매: 자면서 꾸는 꿈
- 19) 달빛이 맑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 20)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공자의 「예기」에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 해와 달은 치우침 없이 비치지 않는다)에서 유래)
- 21)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천암만학의~거즌말 아니로다'를 시적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입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2)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검소한 서재
- 23) 옥루: 옥으로 장식한 누각,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대궐의 누대를 뜻함
- 24) 청준: 맑은 술이 담긴 술동이
- 25)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다는 의미

<결 사>

춘하추동(春夏秋冬) 경물(景物)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翫賞)이 새로오니
 몸이 한가(閑暇)하니 귀 눈은 겨를 없다
 여생(餘生)이 얼마치리 백발(白髮)이 날로 기니
 세상(世上) 공명(功名)은 鷄肋(계륵)¹⁾이나 다름소냐²⁾
 강호(江湖) 어조(魚鳥)이 새 맹세³⁾ 깎쳐이니
 옥당금마(玉堂金馬)⁴⁾의 몽혼(夢魂)⁵⁾이 섰기엿다⁶⁾
 초당연월(草堂煙月)⁷⁾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⁸⁾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종일취(終日醉)를 원(願)하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⁹⁾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결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아름답고
 낮 밤 아침 저녁에 경치를 즐겨 구경하는 것이 새로우니
 몸은 한가하나 귀와 눈은 (경물을 완상하느라) 쉴 겨를 없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가, 흰 머리가 날로 길어가니
 세상의 공명은 계륵과 다르겠느냐?
 강호에서 물고기와 새와 맺은 새로운 맹세가 깊었으니
 조정 요직으로 벼슬살이 할 때가 꿈속의 뉘트로 섞이었다.
 초당의 달빛 아래 시름없이 누워 있어
 시골의 술에 물고기 안주로 종일 취하기를 바라노라.
 이 몸이 이리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1) 계륵: 닭의 갈비. 먹고자 하면 먹잘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의미

2) 속세에서의 공명을 추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

3) 자연에서 함께 지내자고 물고기, 새와 맹세를 함

4) 옥당금마: 조정에서의 요직을 의미(중국 한나라 궁궐의 옥당전과 금마문에서 유래)

5) 몽혼: 꿈

6)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조정의 요직을 맡아 벼슬살이 하던 옛날이 아득히 먼 꿈속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7) 초당: 초가집

연월: ㉔연기 같은 안개 속에 보이는 은은한 달 ㉕ (임금의 선정을 표상하는 달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세상이 태평한 모양새

8) 연월을 ㉕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식적화자는 임금의 선정에 따른 태평성대에 아무 시름 없이 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9) 풍류 생활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유학자의 자세가 나타난다.

손창섭, <잉여 인간> (유형편, p.102)

<전체 줄거리>

익준과 봉우는 주인공 만기와 중학교 동창이다. 불의를 보면 비분강개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익준과 전쟁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은 봉우. 이들은 매일같이 만기의 치과에 방문하는 잉여 인간들이다. 세상일에 관심도 없고 매번 즐기만 하는 봉우가 치과에 가는 이유는 간호사 인숙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도 봉우에게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봉우의 처는 만기를 유혹하기 위해 월세를 핑계로 협박까지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만기는 쫓겨나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평소에 만기를 사모하던 인숙이 모아둔 돈을 주려고 하지만 만기는 거절한다. 설상가상으로 만기는 익준 처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아픈 아내의 병 구원을 위해 별이를 가서, 연락이 두절된 익준 대신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 만기와 봉우는 봉우의 처로부터 장례 비용을 마련해 장례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장례가 끝난 뒤 상복을 입은 아들을 통해 아내의 죽음을 접한 익준은 그대로 굳게 된다.

<주요 등장 인물>

서만기: 치과 원장, 잉여인간으로 표현된 동창 익준과 봉우를 포용하는 인간애를 보여줌.

채익준: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고 무슨 일이든 몸을 사리지 않음. 넘치는 정의감으로 직업을 쉽사리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줌.

천봉우: 전쟁으로 수면장애, 가족과의 사별 등 상처를 얻음.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 살고 있으며 만기의 치과 간호사 인숙을 사모함.

봉우 처: 만기의 치과건물 주인이며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음.

홍인숙: 만기 치과의 간호사. 만기를 사모함.

<주 제>

1950년대 전후의 부조리한 상황과 그로 인해 생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만 정의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익준과 전쟁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 아내에게 기생하는 봉우. 작가는 전쟁의 피해자인 이들을 잉여인간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타인을 포용하는 만기를 통해 인간애와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감상 Point>

● 작가 손창섭

작가 손창섭의 작품 속 인물은 대개 장애를 가졌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이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한다. 작가의 이전 작품인 「비 오는 날」은 전쟁으로 인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그렸다는 점에서 「잉여 인간」과 유사하지만 「잉여 인간」 속 만기와 같은 긍정적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긍정적 가능성 보다는 전후의 참담함을 나타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잉여인간」에서는 인간애를 통한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비 오는 날」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동옥, 정신적 장애를 가진 동옥, 무기력한 원구와 '비'라는 우울의 요소를 더해 전쟁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전략) 그 순간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옥의 왼쪽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옥은 다시 한 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찢지 않은 구석자리에 재빨리 주저 앉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하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옥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후략)」 「비 오는 날」 중에서

→ 부정적 모습만을 보여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세상을 등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동옥의 모습을 꾸밈없이 묘사해 <잉여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아픔을 묘사함.

● 치과(=병원)의 의미

매일같이 치과에 모이는 세 인물들에게 치과의 의미는 상이하다. 익준에게 치과는 신문을 읽으며 사회를 비판하는 공간, 가정과 직장에 속하지 못해 머무는 경계적 공간이다. 봉우에게는 간호사 인숙을 사모하는 공간이며 의식과 잠 사이를 넘나드는 경계적 공간이다. 정리하면, 익준과 봉우에게는 치과는 경계의 공간이다. 만기에게 치과는 생계유지를 위한 공간이며 '잉여 인간'인 두 친구를 포용하는 공간이다.

작자 미상, <적성의전> (유형편, p.116)

<전체 줄거리>

안평국의 맏아들 항의는 심술이 고약하지만 둘째 아들 성의는 마음씨가 곱고 재덕을 겸비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리는데, 어떤 도사가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은 일영주 뿐이라 말한다. 효심이 가득한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하늘 끝인 서천으로 길을 떠난다. 선관의 도움으로, 성의는 서천에 무사히 도착해 일영주를 구한다. 한편, 성의가 일영주를 얻어 받을 찬양에 불안을 느낀 항의는 성의를 뒤따라 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눈을 찔러 바다에 던져 버린다. 바다에 버려진 성의는 호승상에 의해 구출되고 궁궐에 머무르게 된다. 그곳에서 성의는 채란공주를 만나는데, 기러기가 발목에 편지를 맨 채 찾아온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은 성의는 감격에 겨워 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성의는 채란공주와 결혼해 함께 안평국으로 귀환하기로 한다. 항의는 성의를 없애기 위해 자객 적부리를 보내지만 공주가 물리치고, 항의 또한 직접 싸우다가 군사에게 의해 죽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성의는 안평국에 귀환해 왕위를 계승하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주요 등장 인물>

성의: 재주와 바른 인품을 가진 인물.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이다.
항의: 성의의 형. 성의를 시기해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채란공주: 성의와 결혼한 중국의 공주. 항의가 보낸 자객 적부리를 죽일 정도로 대범하다.

<주 제>

권선징악과 부모에 대한 효

<감상 Point>

● 채란공주

「(전략 줄거리: 항의가 보낸 자객 적부리는 상의가 탄 배를 막고 상의 일행을 소탕하려 한다.)

부마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골육상쟁이로다. 공주는 안심하소서. 내 나아가 당적하오리다.” 하니,

공주 대답하기를,

“부마는 지식이 넉넉하오나 무예를 익히지 아니 하였사오니 어찌 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첩은 어렸을 때부터 무기를 좋아하여 말달리기와 창쓰기를 연습하였습니다. 지금 적장의 용맹을 보니 당대의 명장이지만 족히 두렵지 아니 하오니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니 그 소리가 옥반에 진주 구르듯 하였다. 적부리가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에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칠십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는데,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묻혀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적진 중에서 적부리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장창을 들고 내달아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는 조그만 여자이다. 내 형을 죽이고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하니 이는 부리의 아우 문이라. 오백 근 철퇴를 들고 달려들어 싸울 때에, 황성 장졸이 접응하여 공주를 도우니 창검이 서리 같았다. 문이 더욱 분하여 서로 싸워 칠십여 합에 이르러도 서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할 정도로 검술이 신묘하니 참으로 적수였다. 공주가 정신을 진정하여 무슨 경문을 외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오방신장이 내려와 좌우로 적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문이 황겁하여 도망하고자 하더니 문득 공주의 검광이 빛나며 문의 무리가 검광을 따라 떨어졌다. 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닫고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다’ 하고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보내니, 군사들이 물러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를 불렀다. (후략)」

→ 채란공주가 항의의 부하인 적부리를 적극적으로 상대하고,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능동적이고도 능력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 기러기

기러기는 서로 떨어진 성의와 부모를 편지로 연결해주고,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래로 상대방 눈을 못 쓰게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기러기는 작품 내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